

반동에서 ‘일대일로(一帶一路)’까지: 냉전시기 중국의 아프리카 원조와 제3세계론*

백지운**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HK부교수

이 글은 탈냉전 이래 중국의 전면적 세계전략의 청사진인 ‘일대일로(一帶一路)’가 냉전시대 ‘반동담론’에서 ‘두 개의 중간지대론[兩個中間地帶論]’, ‘3개 세계론(三個世界論)’으로 이어지는 중국의 세계인식이자 대외전략의 단절적 귀환이라는 주장에서 출발한다. 이를 위해 냉전시대 미국과 소련 두 강대국 사이에서 중국이 독자적인 세계전략을 구상하고 그것을 이론화하는 과정에 아프리카 원조의 경험이 실천적 뒷받침이 되었음을 논술하고, 그로부터 만들어진 ‘아시아-아프리카 연대’의 구호가 오늘날 ‘남남협력’ 및 ‘글로벌사우스’라는 이름으로 다시 소환되는 과정에서 발견되는 연속과 단절의 고리들을 통해 ‘일대일로’를 사상적 차원에서 문제화하는 사유의 틀을 모색한다.

주제어 일대일로(一帶一路), 제3세계, 반동회의, 두 개의 중간지대론, 3개 세계론, 글로벌사우스, 아시아-아프리카 연대

I. 연속과 단절: AALA에서 글로벌사우스로

2013년 시진핑(習近平) 주석이 카자흐스탄 방문 중 선포한 ‘일대일로(一帶一路)’는 탈냉전 이후 중국이 처음으로 본격적으로 내놓은 세계전략이다. 개혁개방 이후 세계혁명을 위한 국제통일전선이 폐기된 이래 중국공산당의 대외정책 기조는 기본적으로 ‘도광양晦(韜光養晦)’였다. 힘을 기를 때까지 세계전략을 천명하지 않는 것이 덩샤오핑(鄧小平) 이래 대외정책의 기조였던 것이다. 그런데 2008년 베이징올림픽을 계기로 중국의 부상이 가시화되고 미국의 전략적 초점이 아시아로 향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2013년, 중국은 그동안 여러 갈래로 추진해 온 대외사업들을 ‘일대일로’라는 메가급 이니셔티브 아래 집결시켰다. 중앙아시아

* 이 논문은 2023년도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의 아시아기초연구사업의 지원 및 2021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21S1A5A2A03063022).

** febwty@snu.ac.kr

아 일대의 안보협력기구로 시작하여 아시아, 중동부 유럽, 북아프리카로 확장 중인 상하이협력기구(SCO: Shanghai Cooperation Organization), 중국, 러시아, 중동,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를 아우르는 브릭스(BRICS), 중국-아프리카, 중국-아랍 국가들의 다자협력기구인 중국-아프리카협력포럼(FOCAC: Forum on China-Africa Cooperation)과 중국-아랍협력포럼(CASCF: China-Arab States Cooperation Forum) 등은 ‘일대일로’를 구성하는 주요한 뼈대이자 강력한 추진체다.

이처럼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세 대륙 간의 정치·경제 협력을 강화하고 문화, 교육, 과학기술 등으로 영향력을 확대해 나가는 ‘일대일로’의 기획은 어딘가 냉전시대 중국이 제3세계에 시행한 혁명원조를 상기시킨다. 반동회의 이후 본격적으로 개시된 중국의 제3세계 정책 이론적으로 정립한 것은 마오쩌둥(毛澤東)의 ‘3개 세계론(三個世界論)’이었다. 미국과 소련의 제국주의를 제1세계로, 아시아·아프리카·라틴아메리카를 그에 저항하는 제3세계로 구분하고 유럽과 일본 등 선진국을 완충지대(제2세계)로 둔 ‘3개 세계론’은 1974년 2월 마오쩌둥이 잠비아의 케네스 카운다(Kenneth Kaunda)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처음 언급하고 동년 4월 덩샤오핑이 연합국 6차 특별회의 연설에서 재차 사용함으로써 공식화되었다. 이 ‘3개 세계론’의 이론적 중추가 되는 것이 바로 아시아·아프리카·라틴아메리카(이하 AALA)의 연대다. ‘일대일로’는 지난 반세기 동안 퇴색해 간 AALA 연대의 슬로건을 ‘남남협력(South-South Cooperation)’ 혹은 ‘글로벌사우스(Global South)’라는 이름으로 다시 불러냈다.

AALA 연대가 ‘일대일로’라는 플랫폼을 통해 ‘글로벌사우스’로 귀환하는 과정에는 역사의 연속과 단절이 공존한다. 일면, 중국의 외교정책에 제국주의에 억압 받는 제3세계의 역사적 경험이라는 코드가 깊이 각인되어 있고 그것이 지금까지도 대외정책의 기저를 이루고 있다는 점에서(Sheng and Nascimento, 2021: 1-6) 양자는 연속적이다. 그러나 AALA 연대가 냉전시대 중국이 지향하는 세계혁명의 정당성과 동력을 주입하는 슬로건이었다는 점을 상기한다면, 세계혁명이 중국의 세계전략에 더는 존립하지 않는 지금, 양자 사이에는 근원적인 단절이 존재한다. 이처럼 ‘AALA 연대’가 ‘남남협력’, ‘글로벌사우스’로 귀환하는 과정에 내재된 연속과 단절에 관한 탐문은 미중 세력경쟁 시대의 중요한 화두인 ‘일대일로’를 그 저변에 은닉된 역사적 맥락으로부터 새롭게 문제화하는 통찰을 제공한다.

이 글은 탈냉전 이래 중국의 전면적 세계전략의 청사진으로서 '일대일로'가 냉전시대 '중간지대론(中間地帶論)'에서 반동회의를 거쳐 '두 개의 중간지대론(兩個中間地帶論)', '3개 세계론'으로 이어지는 중국의 세계인식이자 대외전략의 단절적 귀환이라는 주장에서 출발한다. 그 단초로서 '3개 세계론'이 반동회의 이후 20년에 걸쳐 중국의 대외정책으로 구축되는 과정에 아프리카 원조의 경험이 중요한 실천적 토대가 되었음을 드러내고자 한다. 1940년대 제기된 '중간지대론'은 1955년 '반동회의' 이후 '두 개의 중간지대론'으로 수정되고 1974년 중국판 제3세계론인 '3개 세계론'으로 완성된다. 1955년부터 1974년까지의 20년은 중국-아프리카 관계를 틀짓는 관건적인 시기였다. 그전까지 북한과 베트남에 집중되어 있던 중국의 대외원조가 1950년대 후반부터 AALA로 이동한 바 그중에서도 아프리카의 비중이 대거 상승한 것이 그 단적인 예이다. 더 근본적인 차원에서, 반동회의에서 아프리카와의 조우는 판문점회담과 제네바회담으로 세계 무대에 갖 데뷔한 중국이 세계정세를 읽는 시야를 획득하고 소련으로부터 독자적인 혁명 이론을 구상하는 계기가 되었다. 1960년대 중국공산당이 자주 사용했던 '아시아-아프리카 연대'는 냉전시대 중국이 세계인식과 세계전략이 응축된 슬로건이었던 것이다.

냉전시기 중국과 아프리카 관계의 방대한 스펙트럼을 이 글에서 본격적으로 다루기는 어렵다. 다만, 그 초보적 시도로서 이 글은 냉전시대 미국과 소련 두 강대국 사이에서 중국이 독자적인 세계전략을 구상하고 그것을 이론화하는 과정에서 아프리카 원조의 경험이 실천적 뒷받침이 되었음을 논술하고, 그로부터 만들어진 '아시아-아프리카 연대'의 구호가 오늘날 '남남협력' 및 '글로벌사우스'라는 이름으로 다시 소환되는 과정에서 발견되는 연속과 단절의 고리들을 통해 '일대일로'를 사상적 차원에서 문제화하는 사유의 틀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II. '일대일로'의 지정학에서의 아프리카

'일대일로'에서 아프리카 대륙이 차지하는 위상은 상당하다. 2013년 '일대일로'를 선포한 직후부터 아프리카에서는 인프라 부문에서 굵직한 성과를 내기

시작했다. 이는 관련 사업들이 ‘일대일로’ 선포 이전부터 추진되고 있었음을 뜻한다. 대표적인 사례로, 먼저 2014년에 재건된 벵겔라 철도(Benguela Railway)를 들 수 있다. 20세기 초 포르투갈 식민지 시절에 부설된 이 철도는 1970년대에는 콩고의 풍부한 광물자원을 앙골라의 로비토(Lobito) 항을 통해 유럽으로 실어 나르는 주요 루트였다. 앙골라 내전(1975~2002)으로 거의 폐기된 이 철도의 재건을 위해 2006년 중국철도건설공사(CRCC)가 관련 양해각서를 체결했고 2014년 운행이 재개되었다. 다음은 2017년 완공된 몸바사-나이로비 철도(Mombasa-Nairobi Railway)다. 케냐의 수도 나이로비와 인도양에 연한 항구도시 몸바사를 연결하는 이 철도는 2011년 중국도로교량공사(CRBC)에 의해 양해각서가 체결되었고, 2014년 중국수출입은행을 통해 재정출자가 완료되었다. 마지막으로 아디스아바바-지부티 철도(Addis Ababa-Djibouti Railway)가 있다. 동아프리카의 내륙국가 에티오피아의 수도 아디스아바바와 아덴만의 연해도시 지부티 시터를 연결하는 이 철도는 2011년 중국철로공정총공사(CREC)와 중국토목공정집단유한공사(CCECC)에 의해 양해각서가 체결되었고 2018년에 개통했다.

미국의 영향권인 플라카해협을 피해 새로운 교역 통로를 개척하는 것이 관건인 ‘일대일로’의 인프라 전략(溫鐵軍·黃德興, 2015: 87-88)에서 아프리카의 이 세 철도노선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지도를 보면 곧 알 수 있다. 아디스아바바-지부티 철도를 통해 중국은 중동에서 아프리카 대륙의 중심부로 진입하는 가장 빠른 루트를 확보할 뿐 아니라, 민감한 분쟁지역인 수에즈 운하의 입구 아덴만에서 유리한 입지를 선점할 수 있다. 2017년 중국이 지부티에 해군기지를 구축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또한, 몸바사-나이로비 철도가 동아프리카에서 인도양으로 나가는 출로를 열었다면, 벵겔라 철도는 서아프리카에서 대서양으로 빠지는 길을 열었다. 이로써 중국은 위로는 아시아와 북아프리카를 연결하고 사하라 이남에서는 동쪽으로 인도양과 서쪽으로 대서양을 향하는 문을 엮으로써 21세기 자원경쟁의 뜨거운 장으로 떠오른 아프리카 대륙을 사통팔달케 할 인프라의 기초를 놓은 것이다.

흥미로운 사실은 중국이 ‘일대일로’라는 이름으로 아프리카에서 벌이는 대규모 인프라 건설사업의 연원이 냉전시대의 제3세계 원조로 거슬러 올라간다는 점이다. 그 상징적인 사례가 TAZARA(Tanzania-Zambia Railway)이다. 1965년

에 개시되어 1975년에 완공된 TAZARA는 잠비아의 동쪽 국경 뉴카피리움포시(New Kapiri Mposhi)에서 탄자니아의 동쪽 해안 다르에스살람(Dar es Salaam)을 잇는 철도로서, 냉전시대 중국이 아프리카에서 벌인 최대 규모의 대외원조 사업이었다. 마오쩌둥의 '3개 세계론'이 중국·탄자니아·잠비아 삼국 간 협력의 결실인 TAZARA의 완공을 앞둔 시점에서 잠비아 대통령과의 회견 중에 나왔다는 사실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이는 '3개 세계론'이 이론적으로 완성되는 과정에 아프리카 원조의 경험이 중요한 원천으로 작용했음을 암시한다. 또한, 2008년 베이징올림픽 성화 봉송 행렬이 TAZARA의 기점 다르에스살람역에서 시작되었다는 사실도 새삼 의미심장하다(黃振乾, 2023: 30; Monson, 2013: 47). 개혁개방 이후 중국이 세계무대에 데뷔하는 장소로 중국-아프리카 우애의 상징인 TAZARA의 기점이 선택되었다는 사실은 중국이 펼치는 세계지도에 아프리카가 어떤 지위를 점하는지를 보여 준다. "중국-아프리카의 우애가 응결된 TAZARA의 정신이 양자가 함께 건설하는 '일대일로'의 여정에도 부단히 빛을 발한다"는 『런민르바오』의 기사는(人民日報, 2023/07/06), TAZARA에 각인된 '중-아 우애'의 상징성이 오늘날 '일대일로'를 통한 중국의 아프리카 진출에 든든한 역사적 기초를 제공하고 있음을 말해 준다.

중국-아프리카의 관계라는 시각에서 보면 '일대일로'는 결코 평지돌출이 아니다. 그것은 필경 냉전시대 중국의 제3세계 정책과 맞닿아 있다. 잠비아 동쪽 국경에서 탄자니아를 통해 인도양으로 연결하는 TAZARA가 건설된 지 40년 후인 2015년, 이번에는 잠비아 북서쪽 국경과 접한 콩고민주공화국의 루알라바(Lualaba)에서 앙골라를 거쳐 대서양으로 이어지는 벵겔라 철도가 역시 중국의 자본으로 재건되었다. 가운데 비어 있는 잠비아 노선까지 연결된다면, 사하라 이남의 대륙 횡단노선이 중국의 자본으로 지어질 판이다(백지운, 2023: 66). 이에 대응하기 위해 현재 미국과 유럽연합이 앙골라-콩고민주공화국-잠비아를 연결하는 로비토회랑(Lobito Corridor)에 적극 개입하고 있다. 로비토회랑은 2014년 중국이 재건한 벵겔라 철도를 잠비아 북서부 국경지대까지 연장하는 노선으로, 2023년 유럽계 회사 트라피구라(Trafigura)와 30년 조차계약이 체결된 상태다. 이는 워싱턴 정부가 '일대일로'를 의식하여 대규모의 자금을 투입한 첫 철도 사업이기도 하다(Lobito Corridor IPA, 2024). 중국 역시 이에 대한 맞대응으로 TAZARA

의 리모델링과 운영권 획득을 위해 10억 달러의 투자를 탄자니아와 잠비아에 제안했다(Chabala, 2024; *South China Morning Post*, 2024/02/09). 제국주의 시절의 ‘코퍼 벨트(Copper Belt)’를 재건하는 데 중국과 서구(미국)가 경쟁하는 지금의 상황은 유럽으로부터 갖 독립한 아프리카 대륙에 미국, 소련, 중국이 뛰어든 1960~1970년대를 방불케 한다.

반도체와 전기차 등 첨단산업의 우위를 놓고 가열되는 미중 세력경쟁 국면에서 리튬, 구리, 코발트 등 클린에너지 산업의 핵심 자원을 다량 보유하는 아프리카 대륙은 제국주의 시대 이후 다시 한번 세계의 뜨거운 각축장으로 떠오르고 있다. 중국은 아프리카의 자원 채굴과 가공 영역에 일찍부터 진출했다. 2023년 기준으로 아프리카에는 전 세계 클린에너지 자원의 30%가 매장된 것으로 추산되는바 그중 향후 10년간 아프리카에서 공급될 자원의 90% 이상이 중국 회사 지분이 참여하는 사업체에서 나온다는 전망이다(*The Economist*, 2023/11/09). 이코노미스트지는 2023년 기준으로 중국이 전 세계 니켈의 68%, 구리의 40%, 리튬의 59%, 코발트의 73%를 가공하고 있으며, 이는 그동안 서구세계가 경제적 실용성과 정치적 이념에 잡혀 아프리카 투자를 주저하는 동안 그곳에서 “중국이 활개친” 결과라고 말했다(*The Economist*, 2023/02/28, 2023/11/09).

‘일대일로’의 손이 뻗치는 많은 저개발 지역 중에서도 아프리카에서 중국의 존재는 특히 논쟁적이다. 서구세계는 중국이 현행 국제질서를 따르지 않고 아프리카의 권위주의 체제를 지원하고 있으며, 과거 유럽 제국주의가 했던 그대로 아프리카에서 신식민주의를 자행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반면, 서구의 국제질서가 지난 500년간 아프리카를 착취하기 위해 디자인되었고 지금까지도 아프리카를 이등 시민으로 취급한다고 믿는 다수의 아프리카 국가들은 오랫동안 국제질서의 개선을 갈망해 왔으며(Murithi, 2023), 그런 맥락에서 중국을 대안적인 발전 모델로 여긴다(Sheng and Nascimento, 2021: 5). ‘윈윈(win-win) 전략’이라든가 ‘평화발전’ 같은 중국의 아프리카 개입 담론은, 설령 그것에 잘못된 전제가 깔려 있다 하더라도, 아프리카의 엘리트 사회에서 상당한 설득력을 얻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Adem, 2013: 2-4).

중국의 아프리카 개입을 둘러싼 비판론과 낙관론 사이에서 어느 하나에 전적으로 손을 들어주는 것은 어렵다. 양쪽 모두 나름의 일리가 있기 때문이다. 아템

(2023)은 중국-아프리카 관계를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성의 사회지(social knowledge)의 지도그리기 작업(mapping)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자신이 서 있는 정치·사회·문화적 좌표에 따라 사회지의 편성이 달라진다는 것이다. 여기에 추가해야 할 또 다른 중요한 좌표가 역사다. 반동회의에서 '3개 세계론'으로 가는 20년의 역사를 참조하지 않고서는 중국-아프리카의 관계의 다층적 의미를 온전히 읽어 낼 수 없으며, 나아가 '일대일로'를 제대로 문제화하는 입구를 찾기 어렵다.

III. 반동에서 혁명원조, 그리고 남남협력으로

1. 사회주의국제주의의 파열과 AALA의 부상

중국의 대외정책에서 아프리카가 중요하게 인식된 것은 언제부터일까. 이를 논하기 위해서는 먼저 중국공산당의 역사에서 '대외원조'가 지금의 공적 개발원조와는 전혀 다른 개념이라는 점부터 짚어야 한다. 냉전시기 대외원조는 기본적으로 '혁명외교'의 수단이었다. 양쿠이송(楊奎松, 2010: 64)은 중국공산당에 현대적 의미에서의 '외교'란 존재하지 않았으며 외교란 본질적으로 국제통일전선을 뜻했다고 말했다. 계급투쟁과 제국주의 타도를 지상과제로 삼는 세계관에서 타협과 양보를 통해 상대국과의 공존과 화목을 추구하는 외교 관념은 존립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그는 중국공산당이 '외교'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한 1940년대 이후에도 마오를 비롯한 중공 지도자들에게 그것은 늘 '국제통일전선'과 혼용되었다고 주장했다. 일례로 1944년에 하달된 "중공중앙의 외교공작에 관한 지시[中共中央關於外交工作的指示]"에도 "외교는 당의 국제통일전선의 일부이며 국제계급투쟁의 특수한 형식"으로 정의되고 있다(楊奎松, 2010: 66). 같은 맥락에서, 중국에서 외교는 원조와 떼어놓고 설명하기 어렵다. 신중국 초기 서방의 전면적 봉쇄와 수출입 금지 조치 아래 중국은 대외정책으로 '소련 일변도'를 택해 소련으로부터 원조를 받았으며, 동시에 북한과 베트남 등 사회주의 국가들에 원조를 제공했다(주홍, 2015: 25). 중국에서 현대외교는 대외원조에서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대외원조는 국제통일전선이라는 목표를 실현시켜 궁극적으로

혁명외교에 복무하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전략적 수단이었다(蔣華傑, 2016: 83-84).

그렇다면 중국 외교에서 혁명원조와 현대 외교의 경계는 어떻게 갈라지는가. 장화제(蔣華傑, 2023: iv)는 중국 대외원조를 ‘사회주의 혁명원조’(1950~1970년대 초)와 ‘개혁개방 시기의 원조’(1970년대 중반~현재)로 구분하고, 전자를 다시 사회주의 국제주의가 작동하던 1950년대 초중반과 중소갈등이 본격화된 1950년대 후반~1970년대 초반으로 나누었다. 이 구분법에서 주목할 것은 ‘사회주의 혁명원조’ 시기 중에서도 1950년대와 1960년대를 질적으로 다른 시기로 본다는 점이다. 양자를 구별하는 기준은 사회주의국제주의의 작동 여부다. 즉, 1950년대 소련으로부터 받은 기술과 자원을 북한과 베트남으로 전달하는 항미원조(抗美援朝)·항불원월(抗佛援越) 중심의 대외원조는 소련이 영도하는 사회주의국제주의의 시스템 안에서 진행된 것이었다. 반면, 1950년대 말부터 사회주의 진영 내 이념적 합법성을 둘러싸고 중국과 소련 간에 주도권 다툼이 벌어지면서 중국 대외원조의 무게중심은 아시아·아프리카·라틴아메리카의 AALA로 대거 이동한다. 중국 외교에서 아프리카의 지위가 부상하게 된 것은 사회주의국제주의가 파열하고 중국이 소련으로부터 독자적인 세계전략을 구축하기 시작한 상황과 맞물려 있다.

2. 혁명수출과 무장투쟁 노선의 좌절

중국이 아프리카 국가들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는 1955년 4월 18~24일에 개최된 반둥회의였다. 반둥회의는 중국 대외정책의 획을 긋는 사건이었다. 아시아·아프리카 29개국에 모인 자리에서 저우언라이(周恩來)는 이집트, 에티오피아, 골드코스트(가나), 리베리아, 리비아, 수단 등의 지도자들과 접촉했다. 반둥회의 후 중국은 아프리카 국가들과의 관계 강화를 위한 조치에 착수했다. 1955년 외교부는 유럽사(司)에서 아프리카사를 독립시키고 1956년 5월 16일에는 여기에 외교직능을 갖춘 상무대표처를 설립했다. 그리고 이듬해 3월에는 대외무역부 장관 예지창(葉季壯)을 카이로에 파견하여 이집트와 정식으로 수교했다(蔣華傑, 2014: 25).

반둥회의 직후 중국이 아프리카 진출의 통로로 주목한 곳은 이집트, 알제리, 모로코, 수단 등의 북아프리카였다. 특히 반둥에서 저우언라이와 깊이 교감했

던 나세르를 대 아프리카 공작의 통로로 삼아 각지의 공산당 및 무장투쟁을 지원하는 정책을 취했다. 당시 중국이 나세르를 중시했던 이유는 아시아와 아프리카를 연결하는 이집트의 지리적 특성 외에도 1956년 수에즈 운하를 둘러싼 이집트의 대영(對英) 반제투쟁에 깊은 인상을 받았기 때문이다. 아랍세계의 반영투쟁을 선도했던 나세르는 1956년 7월 수에즈 운하의 국유화 선포 이후 서방세계로부터 강력한 경제 봉쇄에 부딪혔다. 그때 중국이 나서서 500만 달러의 차관을 제공하는 등 앵글로-프랑코-이스라엘 세력에 대항하는 이집트의 투쟁을 적극 지원했던 것이다. 이는 중국의 아프리카 개입의 시작을 알리는 지표적 사건이었다(El-khawas, 1973: 24). 그 화답으로 이집트는 아프리카 국가 중 가장 먼저 중국을 국제사회에서 공인했다(1956년 5월).

그러나 북아프리카에서 중국의 개입전략은 성공적이지 못했다. 알제리와 모로코, 이집트의 좌파정권은 자국 공산당에 억압적이었다. 1958년 이후 나세르는 공개적으로 반공을 선언했고 이집트공산당을 해산시켰다. 비슷한 시기 알제리와 튀니지에서도 공산당이 고립되거나 지하화되면서 북아프리카 지역에서 계급혁명을 기대하기는 난망해졌다. 게다가 이 지역의 공산당들은 중국보다는 소련에 기울어 있었다(Scalapino, 1964: 645). 1961년의 CIA의 어느 보고서는 1960년 모스크바에서 개최된 모 회의에서 중국과 소련의 대표단이 아프리카 노선의 세부 사안을 두고 이념투쟁을 벌였으며 현장에 있던 남아프리카, 튀니지, 모로코, 수단, 이집트의 공산당 대표들이 소련을 지지했다고 기록하고 있다(CIA Office of Current Intelligence, 1961: 13).

아프리카 노선을 둘러싼 중국과 소련의 노선 충돌은 큰 틀에서 1950년대 후반에 개시된 중소갈등과 맞물려 있었다. 서구와 '평화공존'을 선언한 소련이 아프리카에서 급진적 계급투쟁보다 민족민주(national democracy) 혁명노선을 선호했다면, 중국은 그런 소련의 노선을 수정주의라 비판하며 아프리카 혁명에서 무장투쟁의 요소를 강조했다.¹ 그런데 장화제(蔣華傑, 2023: v)에 따르면, 중국이 아

¹ 이 노선 차이에 대해서는 민족민주혁명에 대한 중국과 소련의 이해 차이에 기인한다는 해석도 있다. 소련이 민족부르주아지 혁명을 성공시킨 다음 공산당이 그 권력을 전복하는 단계별 혁명을 사고했다면, 중국은 노동자·농민·민족부르주아·소부르주아를 망라한 통일전선을 가동하되 처음부터 공산당이 주도해야 한다고 믿었다는 것이다(Ismael, 1971: 510-511).

프리카에 처음부터 급진적인 태도를 취했던 것은 아니었다. 애초에 마오쩌둥은 아프리카에 중국의 신민주주의혁명(新民主主義革命) 경험을 적용할 수 있다고 믿었다. 즉, 아프리카 내 부르주아 계급과 봉건귀족을 포함한 여러 계급들로 반제반식민 민족통일전선을 구성하여 (계급혁명이 아닌) 민족민주혁명을 전개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세계혁명의 주도권을 두고 소련과 합법성 경쟁이 벌어지면서 중국의 노선이 급진화되었다.

이 시기 중국의 아프리카 정책이 급진화된 데는 복합적인 요인이 있었다. 1960년대 아프리카는 전 세계의 관심이 집중되는 지역이었다. 유럽 제국주의로부터 독립한 신생국들이 생겨나는 이 젊은 대륙에 정치적·경제적 영향력을 확보하기 위해 미국, 소련, 대만, 일본 등이 아프리카에 뛰어들었다. 소련은 수에즈 위기 이후 아프리카에 적극 개입했고 미국의 케네디 정부도 1961년 ‘뉴아프리카 정책’을 발표했다(Hadhri, 2014). 1958년 외교부에 아프리카사(司)를 설립한 대만 또한 1959년부터 농업기술전문가로 구성된 ‘농경대’를 파견하여 아프리카에 원조 공세를 벌였다(蔣華傑, 2014: 30-33). 이러한 가열된 국제 정세도 중국의 아프리카 정책을 급진화하는 하나의 요인이었다고 볼 수 있다. 1961년 중공중앙대외연락부(이하, ‘중연부’)에서 발간한 『아프리카 민족주의정당 개황』의 서문을 보면 중국의 정책방향은 ‘무장투쟁’을 정당화하는 방향으로 확연히 기울고 있었다.

민족독립을 쟁취하는 투쟁에서 제국주의와 일련의 우파 민족 지도자들이 장기간 아프리카에서 선전한 이른바 ‘비폭력주의’ 사상진지는 이미 돌파되어 무장투쟁의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다. 현재 알제리, 카메룬, 앙골라 등지의 민족주의 정당이 무장투쟁을 진행하고 있으며, 제국주의와 식민주의의 억압을 받는 몇몇 민족정당(남아프리카, 포르투갈령 기니, 모잠비크, 영국령 남로디지아 등지의 정당)들도 무장투쟁의 개시를 준비하는 중이다(中共中央對外聯絡部, 1961).

위 글에 따르면 당시 중국공산당은 154개 아프리카 민족주의 정당들을 제국주의와 국내 봉건세력에 쉽게 타협하는 중도파가 다수라고 판단하면서도 무장투쟁의 가능성에 대해 상당히 낙관적이다. 나아가, 아프리카 정당들이 혁명이론의 지도력이 결여되었고 경험과 방법론이 부족한 탓에 점점 더 많은 지도자들이 중국의 혁명 경험을 배우기를 원한다고 진단하고 있다.

그러나 아프리카 민족독립운동이 심화되면서 수많은 아프리카 정당 지도자들이 외국의 혁명 경험을 배울 필요성을 점점 더 크게 느끼고 있다. 그중에서도 많은 이들이 중국을 방문하여 중국혁명의 경험과 마오쩌둥 사상을 배울 것을 요청해 왔다. 최근 2~3년 중국을 방문한 대다수의 아프리카 친구들은 모두 서로 다른 정도에서 우리나라의 사상영향을 받았다. 개중에는 (카메룬의 인민연맹과 포르투갈령 기니독립당의 지도자처럼) 매우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한 경우도 있다(中共中央對外聯絡部, 1961).

1960년을 전후하여 수많은 아프리카의 지도자들이 중국을 방문한 것은 사실이다. 1950년대 초반 해도 중국에 아프리카 사절이 오는 경우는 드물었다. 그런데 1957년과 1959년 벨기에령 콩고에서만 85명이 중국을 방문했으며, 1960년 상반기 마오쩌둥이 만난 아프리카 사절은 111명에 달했다. 1960년대 중반 중연부는 카메룬, 콩고, 잔지바르, 나이지리아, 프랑스령 서아프리카와 적도 아프리카의 좌파 및 중도좌파 간부 총 96명을 중국에 초청했다. 그중에는 1964년 혁명으로 아랍세력을 몰아낸 잔지바르 국민당의 영수 압둘라만 모하메드 바부(Abdulrahman Mohammed Babu)도 있었다. 1959년 마오를 만난 바부는 마오의 무장투쟁론의 열렬한 신봉자가 되었으며, 독립 후 탕카니카와 연합하여 탄자니아를 세운 후에는 초대 대통령 율리우스 니에레레(Julius Nyerere)의 중국 방문을 주선했다. 또한, 1963년 콩고의 크윌루(Kwilu)에서 봉기를 일으켰던 피에레 물레레(Pierre Mulele)도 중국에서 군사훈련을 받고 돌아온 인물이었다. 탄자니아와 잠비아, 카메룬을 비롯한 각처에서 '자유의 전사(freedom fighter)'로 불리는 유격대 양성 프로그램은 마오 시기 말기 중국 대외원조의 20%를 차지했다. 수많은 아프리카 독립운동가들이 베이징 북서부의 창핑과 난징의 군사학교에서 유격대 훈련을 받았으며, 1964년에서 1985년까지 중국은 적어도 아프리카 19개국의 2만여 명에게 군사훈련을 시행한 것으로 알려졌다(Lovell, 2019: 190-195; Sun, 2022: 465).

중국의 아프리카 노선의 급진주의는 1960년대 중반에 절정에 이르렀다. 이는 결과적으로 아프리카에서 중국의 입지를 대거 위축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중국이 아프리카 각지의 게릴라 군대를 지원하여 현지 정부의 전복을 돕는다고 알려지면서 중국의 평판은 크게 악화되었다. 중국의 이미지에 결정적 타격을 가한 것이 1964년 크윌루 봉기로 시작된 콩고 위기였다. 벨기에로부터 갓 독립한 콩고민주공화국(DRC)의 초대 수상 패트리스 루뭄바(Patrice Lumumba)가 1961년

미국 CIA와 벨기에 정부의 합작으로 암살당한 후 브라자빌(Brazzaville)에 거점을 둔 민족해방위원회(CNL)를 중심으로 제2의 콩고 독립운동이 일어난다(Nzongola-Ntalaja, 2011). 중국 정부는 일체를 부인했지만 서구와 아프리카 국가들은 중국이 CNL에 무기와 자금을 대고 있다고 의심했다. 실제로 CNL의 지도자 피에르 물레레는 중국에서 유격대 훈련을 받았고 1964년 1월의 크월루 봉기는 마오의 인민전쟁을 모델로 삼은 것이었다.² 또한 1963년 12월에서 1964년 2월 사이 아프리카 10개국을 순방했던 저우언라이가 1965년 3월 또다시 알제리와 카이로, 탄자니아를 방문하여 카빌라(Kabila), 소말리엇(Soumaliot) 등 콩고 무장세력의 지도자들을 만난 사실도 중국이 콩고 혁명에 어느 정도 간여하고 있었음을 말해 준다. 당시 신분을 감추고 콩고 혁명에 뛰어 들었던 체 게바라(Che Guevara) 역시 1965년 콩고 행에 앞서 베이징을 방문했으며 콩고에 있는 동안에도 저우언라이와 수시로 교신했다(Gott, 1999: xxi-xxii, xxxviii; Cook, 2019: 590).

1965년을 전후하여 반동으로 돌아선 아프리카 정세 변화도 중국의 입지를 약화시키는 데 일조했다. 1965년 11월 남로디지아(Southern Rhodesia, 1980년 짐바브웨 공화국으로 개칭)에서 이안 스미스(Ian Smith) 백인정권이 독립을 선언했고 포르투갈은 앙골라, 모잠비크, 기니 비사우에 대한 장악력을 강화했다. 반면, 아프리카의 좌파 세력들은 잇달아 붕괴되었다. 1965년 6월에는 알제리의 벤 벨라(Ben Bella) 정권이, 1966년 2월엔 가나의 은크루마(Kwame Nkrumah) 정권이 쿠데타에 의해 무너졌으며, 그해 쿠바 아바나에서 열릴 트리컨티넨탈리즘 회의(Tri-Continentalism Conference)의 조직책이었던 모로코의 좌파 인사 벤 바르카(Ben Barka)가 파리에서 납치되어 살해되었다(Gott, 1999: xxxviii). 다호미,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오트볼

² 조디 슌(Sun, 2022: 462-472)은 CNL의 지도자 중 물레레(Mulele)가 중국에서 군사훈련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중국에 얼마나 머물렀는지 알려지지 않으며, 비록 스스로를 마오주의자라 칭했지만 실상은 아프리카 토착사상과 결합한 피상적 수준의 맑스레닌주의자에 불과했다고 말했다. 또한, 베이징 정부가 공개적으로는 콩고의 무장투쟁을 지지한다고 발언했지만, 정작 중국 외교부와 브라자빌 사무소 사이에 오간 전문에 기초하면 중국은 오히려 복잡한 과당이 얽혀있는 콩고 혁명에 말려들지 않기를 바랐다고 주장했다. 쿡(Cook, 2019: 588-590) 역시 마오의 중국이 콩고 혁명에 영감을 제공하긴 했으나 물질적 지원은 제한적이었다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1962년 3월에 중국으로 건너가 최소 6개월에서 16개월을 머물렀던 물레레는 마오의 인민전쟁을 모델 삼아 크월루 봉기를 일으켰고 중국도 콩고의 동부와 북부 지역에서 유격대 훈련을 제공했다. 그러나 중국은 물질적 지원에서는 신중했고 역량도 충분치 않았다.

타(부르키나 파소), 나이지리아에서도 쿠데타가 일어나 좌파 정부가 실각했다. 그로 인해 아프리카에서 중국의 영향력은 크게 줄어들었다. 그중에서도 중국공산당의 오랜 벗 은쿠르마의 실각은 아프리카에서 중국의 영향력에 큰 타격을 입혔다(El-khawa, 1973: 25-26).³ 새로 정권을 잡은 아프리카의 정부들은 중국에 배척적이었다. 쿠데타로 집권한 가나의 신정권은 현지의 중국인 고문들을 구타하여 내쫓았고, 1967년 케냐에서는 중국과 케냐의 외교관들 간에 격투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아프리카 말라가시 연합(OCAM) 10개국은 중국 외교관을 기피 인물(persona non grata)로 분류했다. 1966년 부룬디, 중앙아프리카공화국, 가나, 튀니지는 중국과 외교관계를 단절했다(蔣華傑, 2014: 50-51).

3. '두 개의 중간지대론'의 세계 인식

본질적인 차원에서 1960년대 중국의 아프리카 혁명노선의 급진화는 당시 마오 중공 지도부의 세계 인식 및 전략에 기인했다. 특히 소련으로부터 독자적인 중국의 세계혁명론을 구상하는 이론적 토대로서 이 시기에 정립된 '두 개의 중간지대론'은 아프리카를 비롯한 제3세계 정책 방향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중간지대론'은 1946년 마오쩌둥이 미국 기자 안나 루이스 스트롱(Anna Louise Strong)과의 인터뷰에서 처음 언급되었다. 미국과 소련 사이에는 광대한 중간지대가 있어 그것을 쟁취하지 못하는 한 미국은 소련을 쉽게 제압할 수 없다는 것이 그 골자였다. 이어 1960년대 초 마오는 중간지대를 다시 아시아·아프리카·라틴아메리카의 제1중간지대와 유럽, 일본 등 선진 자본주의 국가의 제2중간지대로 구분하는 '두 개의 중간지대론'을 제기한다. '중간지대론'과 '두 개의 중간지대론'은 세계를 미국과 소련의 두 세력권으로 양분하는 냉전의 이분법을 균열하고 돌파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공통되지만, 적어도 전자에서는 사회주의 진영의 맹주로서 소련의 지위를 부정하지 않았고 그런 만큼 중간지대의 의미도 모

³ 초기 북아프리카 중심의 아프리카 정책이 실패로 돌아가면서, 1959년부터 베이징 정부는 북아프리카에 집중되었던 원조의 범위를 "반제를 지향하는 모든 주의(ism)"로 확대하고 아프리카 정책의 주요 통로를 나세르에서 은쿠르마로 이동시켰었다(蔣華傑, 2014: 27-30).

호했다. 그러나 1950년대 후반 소련과의 갈등이 불거지면서, 모호했던 중간지대가 구체화되기 시작한다. 1963년 9월 28일 중공중앙공작회의의 발언에서 마오는 미국의 압제에 반대하는 세력 제1선에 아시아·아프리카·라틴아메리카를 세우고 제2선에 유럽과 일본 등 선진국을 배치했다. 그러면서 “동구 각국에서도 소련의 압제에 반대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은근슬쩍 미국과 소련을 한편으로 묶는다(中共中央文獻研究室, 1999: 344). ‘두 개의 중간지대론’은 미국과 소련 제국주의를 1세계로 구분하는 1970년대 ‘3개 세계론’을 준비하는 교량이었던 것이다.

한편, 1940년대의 ‘중간지대론’이 중소갈등 이후 ‘두 개의 중간지대론’으로 수정되고 1970년대 ‘3개 세계론’으로 이어진다는 종래의 해석에 대해 천젠(陳兼, 2010)은 조금 다른 견해를 제시한다. 그는 ‘중간지대론’과 ‘두 개의 중간지대론’을 중소갈등 전과 후의 산물로 구분하기보다 연속선상에서 본다. 그에 따르면 마오가 ‘중간지대론’을 구상하게 된 계기는 장제스 국민당 정권을 중국의 유일한 합법정부로 인정했던 얄타체제였다(陳兼, 2010: 8). 이는 ‘중간지대론’이 애초부터 소련에 대한 불신을 깔고 있었음을 의미한다. 나아가 천젠은 ‘두 개의 중간지대론’이 확립된 시기도 1950년대로 앞당긴다. 1954년 제네바회담과 1955년 반동회의가 ‘두 개의 중간지대론’을 구상하게 된 직접적 계기였으며 그것이 1956년의 헝가리, 1957년의 폴란드 사태를 거쳐 확립되었다는 것이다.

천젠의 주장 중 가장 주목해야 할 대목은 ‘중간지대론’에서 ‘두 개의 중간지대론’으로 변화하는 관건적 길목에 반동회의를 두었다는 점이다. 심지어 그는 반동회의를 통해 중국공산당의 ‘반동담론(萬隆話語)’이 구축되었다고까지 주장한다. 1955년 4월 19일의 반동회의에서 제국주의에 대항하는 아시아·아프리카의 저항세력의 일원으로 중국을 위치지은 저우언라이의 “아시아·아프리카 전체회의의 발언-보충발언”이 ‘반동담론’을 탄생시킨 결정적인 텍스트였다는 것이다(中共中央文獻研究室, 1990: 120-125). 천젠이 볼 때, 저우의 이 발언은 한편으로는 혁명국가라는 건국 이래 중국의 정체성을 견지하면서도, 동시에 중국과 아시아·아프리카 국가들과의 식민지 경험의 공통성을 강조함으로써 세계혁명에서 소련이 점하는 주도적 위치에 잠재적 도전장을 내밀었다는 점에서 중대한 의미가 있다. 그는 저우의 이 발언으로 마련된 ‘반동담론’의 초석을 기초로 마오와 중국공산

당이 '중간지대론'에서 '두 개의 중간지대론'으로 향하는 이론적 돌파구를 열 수 있었다고 주장한다(陳兼, 2010: 38-39).

천젠의 논의를 정리해 보면, '중간지대론'에서 '반동담론'을 거쳐 '두 개의 중간지대론'으로 변모하는 과정을 관통하는 핵심은 냉전시대 사회주의 진영이 지향하는 세계혁명에서 중국의 지위를 어떻게 자리매김할 것인가였다. 냉전을 자본주의 대 사회주의라는 동서진영의 논리로 바라보면 소련의 중심적 지위를 부정하기 어렵다. 그러나 천젠이 볼 때 중국은 처음부터 미소 양자구조를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 미소 대결의 관건은 누가 양자 사이의 광대한 중간지대를 쟁취하느냐의 싸움이라는 마오의 '중간지대론'은 겉으로는 '대소 일변도'의 입장을 견지하는 듯하지만, 실제로는 중간지대의 주축인 중국의 존재감을 드러내고 나아가 미소 대결의 현상구조를 미중 모순 구조로 바꾸려는 모종의 중국 중심주의의 욕망이 잠재해 있었던 것이다(陳兼, 2010: 10-11). 이 같은 '중간지대론'의 사고가 가능했던 것은 동서진영 대결을 위주로 하는 세계혁명과 반제민족해방운동의 성격을 지닌 '동방혁명'의 불일치 때문이었다. 한국전쟁과 인도차이나전쟁을 거치면서 소련이 '동방혁명'에서 중국의 주도적 지위를 인정함으로써 혁명분업구조가 형성된 것도 이 때문이었다. 천젠은 '반동담론'이 동방, 즉 아시아·아프리카 비서구 세계의 민족해방운동을 세계혁명의 체제 안으로 끌어들이는 이론적 틀을 다졌으며, 그 기반 위에서 '두 개의 중간지대론'이 반자본주의 계급혁명과 반제 민족해방운동을 연결하는 가교로서 중국의 지위를 부각함으로써 세계혁명에서 소련에 대한 중국의 우위를 정당화하는 이론으로 확립될 수 있었다고 말한다(陳兼, 2010: 45-46).

주목할 것은 '두 개의 중간지대론'이 중국의 아프리카 노선을 무장투쟁 중심으로 급진화하는 데 이론적으로 뒷받침했다는 사실이다. 그 지점을 장화제는 '두 개의 중간지대론'에 내장된 '중국의 길(中國道路)' 개념에서 찾는다. 그에 따르면 '중간지대론'을 뒷받침하는 세계 인식이 '두 진영, 세 국가'였다면 '두 개의 중간지대론'에서는 '제·수·마 삼분천하(帝修馬 三分天下)'로 바뀐다. '두 진영, 세 국가'의 세계 인식은 세계에는 미국과 소련이 주도하는 양대 진영과 제국주의-자본주의, 사회주의, 민족주의의 세 종류의 국가유형이 있다고 보는 것이다. 반면, '제·수·마 삼분천하'는 세계를 제국주의(미국), 수정주의(소련), 맑스레닌주의(중

국가)가 정족하는 형세로 파악한다. ‘두 진영, 세 국가’론에서는 비서구 약소국들이 미소 양대 진영 외에 제3의 선택지(민족주의)를 가질 수 있었다. 그러나 ‘제·수·마 삼분천하’에서 약소국의 선택지는 사실상 둘뿐이다. 미국과 소련의 식민지/반식민지로 전락하거나 중국이 주도하는 맑스레닌주의를 택하거나. 말하자면, ‘두 개의 중간지대론’은 중국을 유일한 맑스레닌주의 국가로 설정하고 ‘중국의 길’만이 비서구 약소국이 가야 할 유일한 길로 설정하는 것이다. 장화제는 ‘두 개의 중간지대론’이 ‘제·수·마 삼분천하’의 세계 인식에 의해 뒷받침됨으로써 ‘중국의 길’이라는 전략 방향을 도출했으며, 이로써 1960년대 마오쩌둥의 세계혁명의 전략적 설계가 이론적으로 확립된다고 말한다. 중국의 대외정책에서 아프리카의 전략적 지위가 급격히 상승하고, 계급혁명보다 민족민주혁명을 추구했던 초기의 온건노선이 무장투쟁론으로 급선회하게 된 것도 이러한 맥락이었다(蔣華傑, 2016: 97-99).

이상의 논의를 정리하면, 중국은 반동회의에서 29개의 아프리카 국가들과의 만남을 계기로 세계혁명의 중심이 동서 대결에서 비서구 세계의 반제민족해방운동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된다. 이에 자신을 아시아·아프리카의 일원으로 정위하여 세계혁명의 최일선에 서고자 했다. 1960년대 중소갈등이 본격화되고 국내에서 반수정주의 투쟁이 격화되면서 세계혁명에 대한 중국공산당의 인식과 노선이 한층 교조화된다. 이에 중국과 아시아·아프리카 국가들의 공통된 식민지 경험을 기초로 상호 우애와 협력을 강조했던 애초의 반동정신은 점차 아시아·아프리카 국가들이 ‘중국의 길’을 가야 한다는 급진적 혁명수출론으로 바뀌게 된다. ‘중간지대론’이 세계를 미국과 소련의 진영으로 가르는 냉전적 이분법을 균열하고자 했다면, ‘두 개의 중간지대론’은 그 냉전적 이분법을 다시 중국의 방식으로 양분했다. 미 제국주의와 소련 수정주의를 하나로, 그리고 중국을 선두로 그에 저항하는 세력을 다른 하나로. 역설적으로 ‘두 개의 중간지대론’에는 사실상 중간지대가 존재하지 않게 된 셈이다.

4. 누가 반동의 적자인가

1963년 12월 13일에서 이듬해 2월 4일까지 시행된 저우언라이의 아프리카

순방은 세계혁명에 대한 이념적 주도권을 두고 중국이 소련과 벌인 치열한 경쟁의 현장을 생생하게 보여 준다. 건국 후 첫 아프리카 순방에는 저우언라이와 외교부장 천이(陳毅)를 비롯한 50여 명의 대규모 사절단이 참가했다. 애초 순방 대상으로 예정된 국가는 아랍연합(이집트), 알제리, 모로코, 가나, 말리, 기니, 수단, 소말리아, 튀니지, 탕가니카, 우간다였다. 그러나 순방 중 잔지바르에서 봉기가 일어나 탕가니카와 우간다의 방문이 취소되고 대신 에티오피아 방문이 임기응변으로 성사된다. 또한 어떤 이유에서인지 알바니아 방문이 중간에 삽입되었다(Deshpande, 1975: 80).

당시에 출간된 영문 주간지 *Peking Review*(北京周報)의 기사들을 보면 중국 정부가 저우의 아프리카 순방을 상당히 신경 써서 대외적으로 선전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 저널은 1963년 51호부터 1964년 7호까지 총 9개 호에 걸쳐 순방에 관한 국내 주요매체의 사설, 순방단의 일정, 아프리카 각국 수반들과의 접견 및 연회 장면, 공동선언문, 저우언라이의 연설과 인터뷰들을 실었다. 우선, 순방 일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12월 14~21일: 카이로 방문. 나세르 대통령 접견, 공동선언문 발표.
- 12월 21~27일: 알제리아 방문. 벤 벨라(Ben Bella) 대통령 접견. 공동선언문 발표.
- 12월 27~30일: 모로코 방문. 하산2세 황제 접견. 공동선언문 발표.
- 1월 1~8일: 알바니아 방문.
- 1월 9~10일: 튀니지 방문. 부르기바(Bourguiba) 대통령 접견. 공동선언문 발표.
- 1월 11~16일: 가나 방문. 은쿠르마 대통령 접견. 공동선언문 발표.
- 1월 16~21일: 말리 방문. 모디보 케이타(Modibo Keita) 대통령 접견. 공동선언문 발표.
- 1월 21~26일: 기니 방문. 세쿠 투레(Sekou Toure) 대통령 접견. 공동선언문 발표.
- 1월 27~30일: 수단 방문.
- 1월 30일~2월 1일: 에티오피아 방문. 하일레 셀라시에(Haile Selassie) 황제 접견.
- 2월 1~4일: 소말리아 방문. 오스만(Osman) 대통령 접견. 공동선언문 발표.

1963년 12월 20일자 *Peking Review* 51호는 신중국 최초의 아프리카 순방이 소련에 대한 이데올로기적 투쟁의 의미를 지니고 있음을 선명하게 보여 준다. 이 저널은 세 개의 논설로 구성되었다. “평화공존: 상반되는 두 정책(Peaceful

Coexistence: Two Diametrically Opposed Policies),” “우애, 연대, 평화를 위한 순방(A Visit For Friendship, Solidarity and Peace),” “중국은 UN에 아프로-아시아 대표가 증가하길 원한다(China Favours Increased Afro-Asian Representation in U.N. Organs)”의 세 편이다. 첫 번째 글은 『런민르바오』와 『홍치(紅旗)』의 사설을, 두 번째는 『런민르바오』 사설을 각각 영어로 번역한 것이며, 마지막은 중국외교부 대변인의 발언을 정리한 것이다. 이러한 배치에 고도의 정치적 고려가 담겨 있음을 짐작하기는 어렵지 않다.

권두논문 “평화공존: 상반되는 두 정책”에서는 소련의 ‘평화공존’과 반동회의의 ‘평화공존’ 개념을 대비시키며 정면으로 정통성 투쟁을 개시했다. 먼저 이 글은 소련공산당 20차 대회에서 제기한 ‘평화공존’이 레닌의 ‘평화공존’ 개념에 위배된다고 비판한다. 이에 따르면, 1915~1916년 레닌이 사회주의 진영 내 평화공존의 필요성을 언급한 이유는 사회주의가 모든 나라에서 동시에 실현될 수 없고 혁명 수행 과정에 자본주의와 전(前)자본주의적 요소가 잔존하여 초기 단계에서 사회주의 국가들 사이에는 필연적으로 차별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질성 때문에 사회주의 국가들은 반드시 평화를 외교정책으로 취해야 하는 반면, 신생 사회주의 공화국을 요람 단계에서 질식시키려 하는 제국주의에 대해서는 타협이 아닌 무장투쟁으로 방어해야 한다는 것이 레닌의 평화공존의 골자다. 이러한 논리에 기반하여 이 글은 소련공산당이 주장하는 ‘평화공존’이 레닌의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로서의 ‘평화공존’ 원칙에 위배될 뿐 아니라 중국과 다른 사회주의 국가들에 ‘미소 공모’의 정책에 굴복하기를 요구한다는 점에서 반동에서 합의한 ‘평화공존 5원칙’에도 저촉된다고 비판한다(*Peking Review*, 1963a: 6-16).

“평화공존: 상반되는 두 정책”의 논지와 목적은 반동의 ‘평화공존’ 원칙을 레닌의 ‘평화공존’ 개념의 계승으로 보고 후르쇼프의 ‘평화공존’을 레닌주의와 반동정신 모두에 위반하는 것으로 규정함으로써, 사회주의 진영과 제3세계 민족해방운동 진영 모두에서 소련의 맹주로서의 지위를 허무는 것이다. 이로부터 중국이야말로 반동의 ‘평화공존’ 정신의 수호자이며 동시에 사회주의 이념의 정통성을 잇는 적자라는 결론이 도출된다. 더 중요한 지점은 반동정신과 레닌주의를 하나의 계통으로 묶는 이 글의 논리에서 사회주의 진영과 중간지대의 경계가 흐

릿해지면서 하나로 뭉뚱그려진다는 데 있다. 다시 말해, 여기에는 ‘제·수·마 삼분천하’의 세계인식이 반영되어 있다. 즉, 세계는 미국의 제국주의와 소련의 수정주의, 그리고 중국의 맑스레닌주의로 삼분되어 있으며 제3세계 국가들의 선택지는 맑스레닌주의의 진정한 계승자인 ‘중국의 길’뿐이라는 주장이 내재되어 있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저우언라이가 아프리카 순방 중 발표한 대외원조 5원칙과 8원칙이 반동의 ‘평화공존 5원칙’과 ‘반동회의 10원칙’을 기반으로 발전시킨 것이라는 사실은 상징적 의미를 지닌다(艾周昌·沐濤, 1996: 243). 1963년 12월 알제리 순방 중 저우언라이는 ‘아랍과 아프리카 국가관계에 관한 5원칙’을, 1964년 1월 가나 방문 중에는 ‘대외경제기술원조 8원칙’을 발표했다.⁴ 이는 아시아·아프리카 세계에서 행하는 중국의 원조가 반동정신을 이은 것임을 천명한 것이다. 중국이 반동정신의 적자라는 주장은 *Peking Review* 같은 호의 두 번째 기사 “우애, 연대, 평화의 순방”에도 피력되어 있다. 이 글은 “1955년 반동회의 이래 중국과 아프리카 국가들의 우호 관계가 반동회의 10원칙과 평화공존 5원칙의 기반 위에 나날이 발전해 온” 바 지난 수년간 중국이 아프리카 국가들과 외교관계를 수립한 것은 반동정신의 구현이며 이번 순방 역시 “아프리카 인민에 대한 6억 5,000만 중국 인민의 깊은 우정을 전하”고 “아시아-아프리카의 우애와 통합, 연대” 나아가 “세계평화”를 위한 것임을 강조했다(*Peking Review*, 1963b: 19-20).

마지막 글 “중국은 UN에 아프로-아시아 대표가 증가하길 원한다”에서는 아

⁴ 5원칙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아랍과 아프리카 각국 인민이 제국주의와 신규 식민주의에 반대하고 민족독립투쟁을 쟁취, 유지하는 것을 지지한다. 둘째, 아랍과 아프리카 각국 정부의 평화중립의 비동맹정책을 지지한다. 셋째, 아랍과 아프리카 각국 인민이 자신이 선택한 방식으로 통일과 단결의 염원을 실현하는 것을 지지한다. 넷째, 아랍과 아프리카 국가가 평화협력으로 상호 간의 분쟁을 해결하는 것을 지지한다. 다섯째, 아랍과 아프리카 국가의 주권이 타국의 존중을 받아야 하며 그에 대한 어떠한 침범과 간섭에 반대한다. 한편, 8원칙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첫째, 중국 정부는 일관된 평등호리의 원칙에서 대외원조를 진행한다. 둘째, 대외원조를 수행함에 수원국의 주권을 존중한다. 셋째, 무이자, 저리이자, 상환기간 연장 등 수원국의 부담을 줄인다. 넷째, 대외원조의 목적은 수원국의 중국 의존이 아니라 수원국의 자력갱생이다. 다섯째, 수원국의 건설사업에서 투자요구는 덜 하고 효율을 높여 수원국의 수입과 자산 증진을 도모한다. 여섯째, 중국에서 생산되는 최상의 설비와 물자를 수원국에 제공한다. 일곱째, 수원국의 인력이 기술을 충분히 체득할 때까지 돕는다. 여덟째, 수원국에 파견된 중국 전문가는 수원국의 전문가와 동등한 물질 대우를 받으며 어떤 특혜도 요구하지 않는다(艾周昌·沐濤, 1996: 242-243).

시아·아프리카 국가들이 UN에서 다수 의석을 점하지 못한 상황을 비판하면서 그 원인으로 소련의 방해공작과 UN의 의석 배치 원칙의 차별성을 들고 있다 (*Peking Review*, 1963c: 20-21). 여기서도 미국과 소련을 한편으로, 중국을 포함한 아시아·아프리카를 다른 한편으로 묶는 대항구조가 그려져 있다.

1960년대 격화된 중소갈등 국면에서 중국이 스스로를 반동정신의 적통으로 규정함으로써 소련에 이념적 우위를 쥐고자 했다는 사실은 아프리카 순방 중 저우언라이가 제2의 반동회의를 개최하기 위해 벌인 외교적 노력에서도 확인된다. 1955년 역사적인 반동회의가 성공적으로 개최되었음에도 1960년대 비서구 세계는 반동으로 상징되는 아시아·아프리카 회의와 베오그라드(Beograd/Belgrade)로 대표되는 비동맹회의가 대결하는 장이 되어 있었다. 제2차 반동회의를 개최하려는 수카르노(Sukarno)의 노력은 네루(Nehru)와 나세르의 반대로 번번이 좌절되었다. 1962년에는 거의 개최될 뻔하기도 했으나 중인전쟁(Sino-Indian War)의 여파로 또다시 좌초되었다. 이때 유고의 티토(Tito)가 제2차 베오그라드 회의를 추진하면서, 1963년 즈음 반동회의파와 비동맹회의파의 대결이 팽팽해진다. 중국과 파키스탄이 제2의 반동회의를 지지했다면, 이집트와 인도, 실론(스리랑카)은 비동맹회의에 힘을 보탰다. 그리고 나머지 아시아·아프리카 국가들 대부분은 사실상 중국과 소련이 뒷배경인 이 싸움에서 중립을 취했다(Jansen, 1966: 363-367).

이 분열에 일차적 원인을 제공한 것은 중인전쟁이었다. 인도는 아시아·아프리카 회의가 중국의 공격으로부터 인도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고, 중국이 볼 때 제국주의의 위협을 과소평가하는 비동맹주의는 미·소의 장단에 놀아나고 있었다(Deshpande, 1975: 79). 이념과 슬로건에서 반동회의가 반제반식민주의를 강조했다면 비동맹주의는 소련의 ‘평화공존’의 재코드화로 세계평화를 내걸었다. 아시아·아프리카의 적잖은 국가들이 은근히 비동맹회의쪽으로 기울었던 이유는 반제반식민이라는 공격적인 구호보다는 군축과 경제발전을 강조하는 비동맹회의의 현실적이고 시의적인 슬로건이 더 매력적이었기 때문이다(Jansen, 1966: 367-369). 결국 아프리카 순방 중 제2의 반동회의를 개최하기 위한 저우언라이의 노력은 이렇다 할 결실을 맺지 못했다. 반동회의의 주축 인물 중 하나였던 나세르도 이에 시큰둥했고 대다수 아프리카 국가들은 이

싸움에 끼어들기를 원하지 않았다(Jansen, 1966: 364). 저우언라이는 몇몇 국가 수반과 발표한 공동성명에 제2의 반동회의 개최의 필요성을 형식적으로 기입했을 뿐이고, 아예 기입하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

이러한 상황은 당시 아시아·아프리카에서 중국이 처한 공색한 입장을 반영한다. 아프리카 순방에 앞서, 사회주의 진영뿐 아니라 AALA 및 비동맹 진영에서 중국의 고립을 초래할 만한 두 가지 큰 사건이 있었다. 하나는 1962년 중인 국경전쟁이고 다른 하나는 1963년 핵실험금지조약에 중국이 서명을 거절한 사건이다. 반동회의를 실질적으로 이끈 네루와의 불화에 더해 핵실험금지조약에 보인 부정적 태도로 인해, 중국은 국제사회에서 곤경에 빠져 있었다. 1963년 12월 중국이 대규모 아프리카 순방을 추진한 것은 역으로 아시아·아프리카 세계에서 중국이 처한 위기를 반영하는 것이었다. 더 의미심장한 것은 중국이 당시 제3세계에서 처한 위기를 타개하는 돌파구로 아프리카를 택했다는 사실이다. 각국의 사절을 만날 때마다 저우언라이는 중인 국경전쟁 및 핵실험금지조약에 대한 중국의 입장을 설명하고 설득하는 데 공을 들였다. 그러나 대체로 이들 문제에서 중국은 아프리카 국가들의 전적인 지지를 얻지 못한 듯하다. 저우언라이를 수도인 아디스아바바가 아닌 아스마라(Asmara)에서 접견했던 에티오피아 황제는 핵실험방지조약에 서명하지 않은 중국의 처사를 면전에서 비판하기도 했다(Ismael, 1971: 512-514; Deshpande, 1975: 98).

중국은 왜 제2의 반동회의를 필요로 했을까. 그것은 비동맹회의보다는 아시아·아프리카 회의에서 소련을 배제하기가 쉬웠기 때문이다. 사실 중국의 아프리카 담론에는 모종의 인종적 함의가 들어 있었다. '아시아·아프리카 세계'라든가 '동풍이 서풍을 압도한다'와 같은 중국공산당의 담론에는 서구 제국주의에 대한 피압박 민족의 저항 외에도 백인에 대한 유색인의 저항이라는 의미도 담겨 있었다(Scalapino, 1964: 650). 소련은 종종 공식적인 자리에서 아시아·아프리카 담론의 인종주의적 요소를 비판하곤 했다(Jansen, 1966: 371, 374). 소련을 과연 아시아 국가로 볼 수 있는지도 논쟁적이지만, 다른 두 지점에서 소련은 아시아·아프리카 국가들과 결정적으로 달랐다. 하나는 근(近) 역사에 식민지 경험이 없다는 것, 다른 하나는 저개발국가가 아니라는 점이었다(Jansen, 1966: 380). 이러한 요인들로 인해, 제3세계 나아가 세계혁명에서 이념적 우위를 다투는 싸움에서 '아시

아·아프리카'와 '반동'은 중국으로서 포기할 수 없는 무기였던 것이다.

여러 한계에서 불구하고 저우언라이의 아프리카 순방은 중국의 대외원조에서 중요한 이정표가 되는 사건임에 분명하다. 이 시기를 기점으로 중국의 아프리카 원조의 규모는 급격히 상승했다. 이전까지 중국의 대외원조의 75%가 아시아 국가에 배당되었다면, 1963년부터는 그 중점이 아랍과 아프리카로 이동한다(蔣華傑, 2014: 49). 또한, 외교의 범위를 확대했다는 면에서도 저우의 순방은 효과가 있었다. 1963년에서 64년 사이 중국은 부룬디, 콩고공화국, 케냐, 튀니지, 잔지바르 5개국과 수교했고, 몇 달 후에는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잠비아, 다호미와 관계를 수립했다. 스칼라피노(Scalapino, 1964: 649-650)는 1960년대 이후 중국은 아프리카에서 소련에 대해 우위를 쥐었다고 진단했다. 그러나 앞 절에서 말했듯이 1960년대 중반부터 중국의 대외정책 노선이 급진화되고 또 아프리카 정세가 보수화되면서 아프리카에서 중국의 입지는 급격히 위축된다. 다만, 1964년 중국공산당의 열성 지지자인 바부가 이끄는 잔지바르와 탕가니카가 탄자니아로 통일하면서 다르에스살람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이 크게 증대한다(Ismael, 1971: 515; El-khawa, 1973: 25). 가나의 은크루마 정권이 쿠데타로 무너진 1966년 이후 중국의 아프리카 전략의 거점은 다르에스살람으로 이동한다(蔣華傑, 2014: 46-47).

5. 가난한 자와 덜 가난한 자의 연대

1970년 마오쩌둥의 '5·20성명'을 기점으로 중국의 아프리카 외교는 다시 크게 변화한다. 1960년대 급진화의 오류에서 교훈을 얻은 중국은 더는 아프리카에서 정부를 전복하는 데 관심을 보이지 않았고, 보수, 중도, 급진의 성향을 가리지 않고 협력했다. 먼저, 중국과 양호한 관계를 맺고 있었던 탄자니아, 잠비아, 기니, 콩고공화국에 농업, 공업, 인프라 원조를 강화했고, 아직 수교 전이거나 단교한 국가들과는 (혁명 외교가 아닌) '일반 외교'를 발전시켰다. 또한 에티오피아, 카메룬, 시에라리온 등 부르주아 정권 및 혁명 성향이 열린 정권과도 외교관계를 적극적으로 추진했다(蔣華傑, 2014: 52). 이러한 전향적 접근으로 인해 중국은 1972년 시점에서 28개국의 아프리카와 수교할 수 있었다. 가장 저조했던 1967년의 15개국에 비하면 단기간의 괄목상대할 성과였다. 중국이 1971년 UN에서

의석을 획득할 수 있었던 것도 이러한 노력의 결실이라 할 수 있다. 중국의 UN 가입에 3분의 2의 찬성을 요구하는 미국의 제안에 대한 표결에서, 보츠와나, 카메룬, 세네갈, 시에라리온, 토고 5개국이 기존의 입장을 바꾸어 기권하거나 반대표를 던졌다. 그리고 중국의 UN 가입 결의를 결정하는 투표에서는 르완다, 시에라리온, 토고가 기존의 '반대'에서 '찬성'으로 돌아섰고, 보츠와나, 카메룬, 세네갈, 튀니지가 '기권'에서 '찬성'으로 전향했다(El-khawa, 1973: 26-27). 결과적으로 1971년 알바니아와 알제리 등이 제안한 중화인민공화국의 UN 가입 결의가 통과되었을 때, 이를 제안한 23개국 중 11개국이 아프리카 국가였고 찬성 76표 중 26표가 아프리카 표였다. 그래서 마오쩌둥은 “흑인 형제들이 중국을 UN에 가입시켰다”고 말했던 것이다(洪永紅, 2021).

1970년대 중국의 아프리카 정책의 전향적 변화는 중국의 대외정책 이론이 '두 개의 중간지대론'이 '3개 세계론'으로 대체되는 과정과 맞물려 있다. 1960년대 후반부터 마오쩌둥은 중국과 제3세계의 관계에 대한 사유를 일신하기 위해 중연부, 외교부, 중앙조사부 및 19개 성 연구기관과 고등교육기구를 불러 모아 세계 각지의 역사와 지리를 조사·연구하도록 지시한다. 그중 절대다수를 점한 것이 아시아·아프리카였다. 수년간의 공리를 거쳐 그 결과를 공개한 자리가 바로 1974년 2월 잠비아의 카운다 대통령과의 담화였던 것이다. '두 개의 중간지대론'에서 '3개 세계론'으로의 변화에서 나타나는 중요한 특징은 '제·수·마 삼분 천하'의 세계 인식이 물러나고 중국을 포함하는 제3세계를 국제 반패권통일전선의 중심 역량으로 재건했다는 점, 특히 아프리카를 그 중요한 역량으로 정위했다는 점이다(蔣華傑, 2014: 52-53). 말하자면, '3개 세계론'은 중국의 아프리카 정책에서 무장투쟁을 중심에 두는 급진 노선을 접고 계급을 초월하는 반제반식민연합으로 통일전선을 재정비하는 이론적 틀이었다.

이러한 배경에서 1970년대 중국의 아프리카 원조는 다시 한번 크게 도약한다. 1976년의 CIA의 보고서는 이렇게 쓰고 있다.

중국의 원조 프로그램이 다시 아프리카에 집중되었다. 베이징 정부는 아프리카의 빈곤국에 조직적인 원조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원천이다. 1975년 중국의 원조는 55%가 아프리카에 투여되었다(CIA Office of Current Intelligence, 1976: 7).

그런데 한동안 아프리카에서 과격노선으로 위기에 몰렸던 중국이 다시 주요 원조국으로서 지위를 회복하게 하는 데는 한 가지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다. 바로 탄자니아와 잠비아를 연결하는 철도 TAZARA의 건설이었다. ‘자유의 철도 (Freedom Railway)’라는 별칭이 말해 주듯 TAZARA의 역사는 아프리카의 독립과 자유, 자립의 역사를 상징한다. 영국의 식민지였던 탄자니아와 잠비아는 각각 1961년과 1964년에 독립했다. 그런데 1965년 남로디지아에서 백인 정권의 독립 선언은 탄자니아와 잠비아 양국에 커다란 위협이 된다. 식민지 시대부터 구리산업에 대한 의존도가 절대적으로 높았던 잠비아는 콩고민주공화국과 더불어 아프리카 대륙의 ‘코퍼 벨트’의 주축이었다. 그러나 잠비아는 바다로 가는 길이 막힌 내륙국가다. 구리 운송이 국가 운명을 좌우할 만큼 절대적인 잠비아로서는 백인 정권이 장악한 남로디지아, 남아프리카공화국, 앙골라, 모잠비크를 거치지 않는 대안의 운송로가 절실했다. 이에 탄자니아의 니에레레와 잠비아의 카운다는 독립 직후부터 철로 건설을 위한 자금 마련에 고심했던 것이다. 여기에 적극적으로 화답한 것이 중국이었다. 1965년 실지 답사, 1967년 삼국 간 양해각서 체결, 1970년 준공, 1975년의 완공까지 약 10여 년에 걸친 중국-아프리카의 역사적인 협력사업이 추진되었다. 지금까지도 TAZARA는 제국주의의 잔재인 화이트 아프리카로부터 블랙 아프리카의 독립과 자립, 그리고 아시아-아프리카 연대의 강력한 상징으로서 두 대륙의 공적 기억 공간에서 작동하고 있다(沈喜彭, 2015: 58-59; Monson, 2013: 49).

TAZARA의 부설은 중국인 노동자 3~4만 명, 탄자니아와 잠비아의 노동자 6~7만 명이 동원된 대장정이었다. 공정이 최정점에 이른 1972년 한해에는 중국인 1만 3,500명, 아프리카인 3만 8,000명이 투여되었다. 1,865km라는 거대한 길이는 둘째치고 탄자니아의 우중와(Udzungwa) 산맥의 험난한 지형에 터널을 뚫고 교량을 놓고 음베야(Mbeya) 고원을 통과하는 고된 작업이 오로지 중국식 노동집약적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당시 TAZARA 건설 과정을 모니터링하고 있던 CIA는 어느 보고서에서 TAZARA의 진척 속도가 예상보다 빠르다면서 그 이유로 원난성과 쓰촨성의 삼선(三線) 건설에서 제련된 중국의 노동집약형 기술이 탄자니아의 거친 자연환경에 잘 들어맞기 때문이라 분석했다(CIA Office of Current Intelligence, 1968: 4-6). 이 고된 현장에서 69명의 중국인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다.

당시 문화대혁명 중이던 중국에서 TAZARA의 건설은 기술이나 자원 원조 이상의 의미를 지녔다. 그것은 세계혁명의 일환이자 중국혁명의 모델을 제3세계 형 제국으로 전파하는 숭고한 사업이었다. 파견된 중국 노동자들은 항미원조전쟁, 삼선 건설, 농촌 하방을 거치며 육체적·정신적으로 무장된 이들이었다. 제이미 만선(Monson, 2013: 46-52)은 TAZARA 건설에 참여했던 중국과 아프리카 노동자들의 인터뷰에 기반하여, 당시 중국 기술고문들은 아프리카 노동자들에게 단순히 기술만 전수한 것이 아니라 절제, 규율, 근면 등 인성에 대한 전반적인 교육을 제공했다고 말했다. 아프리카에서 TAZARA의 건설은 근대적인 규율화된 노동자를 주조하는 과정이었다는 것이다. 탄자니아와 잠비아의 노동자들은 앉아서 지시와 감독만 하는 백인들과 달리 현장에서 자신들과 함께 땀 흘려 노동하던 중국인 기술고문들을 기억했다. 비록 개혁개방 이후 중국과 아프리카 모두에서 의미가 퇴색해 갔지만, 당시 TAZARA 건설에 참여했던 노동자들은 ‘역사를 함께 만들어 간다’는 고양된 집단 의식을 공유하고 있었다.

주목할 것은 TAZARA 건설을 위한 중국, 탄자니아, 잠비아 삼국의 협력이 중국이 아프리카에서 가장 고전하던 1960년대 중반에 개시되었다는 사실이다. 사실 탄자니아와 잠비아가 대안적 광물 운송을 위한 철로 건설 공정을 처음부터 중국에 맡기려고 한 것은 아니었다. 애초에 이들은 서구와 모스크바에 원조를 구했다. 그러나 1964년 중반 IBRD(International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에 제안했지만 거절당했고 같은 해 8월 모스크바에 도움을 구했으나 역시 답을 얻지 못했다. CIA의 보고서는 탄자니아가 처음 중국의 도움을 구한 것이 1964년 7월 부통령 카와와(Rashidi Kawawa)의 베이징 방문에서였을 것으로 추정했다. 이어 1965년 2월 니에레레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하여 철도 건설을 위한 원조를 공식 요청했고 베이징이 그것을 수락한 것이다. 반면, 니에레레가 중국공산당의 원조를 받기로 마음을 정한 후에도 잠비아의 카운다는 서구세계의 문 두드리기를 포기하지 않았다. 중국공산당의 정치적 속내를 신뢰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1966년까지도 카운다는 영국과 미국, 서독, 일본, IBRD가 컨소시엄을 조직하여 이 철도의 타당성 조사 및 공정을 맡아 주리라 기대했다. 그러나 1967년 ADB-IBRD가 보내 온 부정적 회신에 마침내 서구세계에 대한 기대를 접는다. 무엇보다 1967년 6월 베이징 방문을 계기로 카운다는 중국이 이 원

조사업에 다른 정치적 목적이 없다는 확신을 갖게 된 듯하다. 카운다가 방중에서 돌아온 직후인 1967년 9월, 중국과 탄자니아·잠비아가 양해각서를 체결했고 철도 부설을 위한 조사 작업이 개시되었다(CIA Office of Current Intelligence, 1968: 4-6).

TAZARA의 진행 속도가 일사천리로 진행된 데에는 중국의 적극성이 큰 역할을 했다. 중국은 니에레레가 방중했을 때 흔쾌히 철도 원조에 동의했고, 잠비아의 의사를 확인하기도 전인 1965년에 이미 기술자를 보내 탄자니아 부분의 사전 조사에 착수했다(蔣華傑, 2014: 47; CIA Office of Current Intelligence, 1968: 6). 고원에 터널을 파고 다리를 놓는 공정을 수반하는 1,800여 km의 철도를 불과 5년 만에 완공한다는 것은, 필요한 인력과 자재의 상당 부분을 베이징과 상하이에서 직접 조달해야 했던 상황에서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TAZARA 프로젝트를 위해 중국의 전국 각지에서 숙련된 기술자들이 모집되었고 이들은 광저우에서 배를 타고 20여 일을 항해하여 동아프리카 해안에 도달했다. 그리고 군가에 맞춰 상륙한 후 곧바로 각자 배정받은 작업 현장으로 떠났다. 다르에스살람 항에는 매일 광저우에서 시멘트 등 건설 장비를 실은 배가 도착했다(Monson, 2009: 45).

TAZARA는 1960년대 아프리카에서 급진적인 혁명수출 노선으로 크게 위축되었던 중국의 지위를 일신하는 데 지대한 공헌을 했다. 1970년 10월 TAZARA의 준공식이 탄자니아와 잠비아 두 곳에서 두 차례에 걸쳐 개최되었다. 10월 26일 다르에스살람에서 열린 기념식에서 잠비아의 카운다 대통령이 기념 연설을 했다. 그리고 곧바로 중국 및 탄자니아의 참석자들을 대동하여 카피리움포시로 이동했다. 10월 28일 카피리움포시에서는 니에레레 탄자니아 대통령이 연설했다(Monson, 2009: 45-46). 이 연설에서 니에레레는 TAZARA 원조의 요청을 거부했으며 중국을 비판하는 서구세계를 이렇게 비꼬았다.

사실 서구의 국가들은 1965년 당시 이 사업을 도와달라는 우리의 요구를 수용할 수도 있었지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더 재미있는 일은 — 아니 더 끔찍한 일은 — 서구인들의 비판에 내재된 자기 증명입니다. 그들의 비판은 그들 눈에 원조는 언제나 지배의 수단임을 말해 줍니다. 그런 비판은 다양한 정도에서 한때 아프리카를 지배했거나 지금도 여전히 지배하고 있는 나라들에서 나옵니다. 중국은 아프리카는 물론 전 세계 어디에도 식민지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그들의 지도자들은 적어도 진지하고 열정적인 반제국주의를 표방하고 있으며 우리 또한 그

러합니다(Nyerere, 1973: 234-235).

중국의 아프리카 원조의 정당성을 이보다 잘 지지해 주는 말은 없을 것이다. 니에레레는 중국의 TAZARA 건설을 원조를 지배의 수단으로 간주하는 서구의 공식과 근본적으로 차별화했다. 나아가 “가난한 자와 덜 가난한 자의 국제연대”라는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TAZARA를 ‘글로벌사우스’의 상징으로 들어 올렸던 것이다.

중국은 부유한 나라가 아닙니다. 중국은 개발도상국입니다. 우리에게 제공하는 장비와 기술이 중국 인민의 발전을 위해 사용될 수도 있었다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우리가 받는 원조가 그것이 더 절실한 이를 위해 내어준 진정한 희생을 잘 알고 있습니다. 관대하고 또 아무 정치적 조건 없는 이 도움에 감격스럽기 그지없습니다. 수상님, 부디 마오쩌둥 주석과 당신의 정부, 그리고 중화인민공화국의 인민들에게 우리의 따뜻한 감사의 마음을 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들의 도움을 그들이 선사한 정신으로, 즉 가난한 세계와 덜 가난한 세계, 중국과 아프리카의 국제연대의 표시로 받아들입니다(Nyerere, 1973: 238-239, 강조는 인용자).

‘가난한 자와 덜 가난한 자의 연대’라는 니에레레의 말은 중국-아프리카 관계에 서구세계가 당할 수 없는 강력한 이념적 힘을 부여한다. TAZARA에 새겨진 중-아 우애, 글로벌사우스의 상징성은 첨단기술 산업의 주도권을 둘러싸고 미중 경쟁이 뜨거운 21세기, 자원의 보고(寶庫) 아프리카로 진군하는 ‘일대일로’의 발걸음을 든든하게 받쳐 준다. 최근 중국 곳곳에서 TAZARA의 서사가 소환되고 재생산되는 상황은 파란만장했던 냉전시대 중국의 아프리카 이력이 어떻게 정치적 자원으로 되살아나고 있는지 여실히 보여 준다.

IV. 중국은 스스로를 제3세계에서 제명시켰는가

‘일대일로’를 바라보는 역사적 참조로서 냉전시대를 주목하는 이유는 현재

의 미중 세력경쟁에서 중국이 준비하는 세계전략이 어딘가 그때와 닮았기 때문이다. 1960~1970년대 아시아·아프리카라는 광대한 중간지대에 기탁하여 미국과 소련 두 대국에 대항했던 것처럼, 지금 중국은 유라시아와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를 연결하는 거대한 띠로 미국의 포위망을 에워싸고 있다(백지운, 2023: 66). 아프리카 ‘일대일로’ 사업의 일환으로 TAZARA의 보수 및 운영권을 획득하고자 하는 최근 중국의 움직임은 보건의대, 역사가 단순한 반복은 아닐지라도 현재는 항상 과거 어딘가에 연원을 둔다는 것을 새삼 확인하게 된다. 한동안 거세계 몰아칠 미국의 공세를 장기적으로 버티기 위해, 중국은 과거에 그랬듯 비서구 국가들과 연합전선을 펴는 데 주력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일대일로’는 냉전시대 대외원조의 거대한 확장판이다.

문제는, 이제는 ‘제3세계’가 아니라 ‘글로벌사우스’라 부르는 비서구 세계와 초대형 연합전선을 구축하는 ‘일대일로’의 전략이 어떠한 이념과 슬로건에 의해 뒷받침되는가이다. 냉전시기 ‘반동담론’에서 ‘두 개의 중간지대론’, ‘3개 세계론’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마오쩌둥과 중공 인사들이 심혈을 기울였던 문제는 제3세계에서 미국 및 소련에 대한 중국의 이념적 우위와 도덕적 정당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였다. 특히 미국보다 소련을 더 큰 위협으로 인식했던 상황에서 그 무게중심은 사회주의 진영에서 소련의 맹주 지위를 균열하고 비서구 세계에서 소련의 영향력을 압도하는 데 있었다. 미국 제국주의와 소련 수정주의를 타도 대상으로 삼는 ‘두 개의 중간지대론’이든 미·소 제국주의를 하나의 적으로 규정하는 ‘3개 세계론’이든 주 타격 방향은 소련이었던바, 특히 미중 데탕트가 진행되던 시기에 나온 ‘3개 세계론’은 사실상 ‘연미항소(聯美抗蘇)’라는 숨은 그림에 의해 뒷받침되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대결의 구조가 삼자구도에서 양자대결로 바뀌고 주요 경쟁 대상이 미국으로 된 지금, 비서구 세계를 규합하는 중국의 전략 방향과 이념적 내용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 반세기 전, 중국과 소련 중 누가 제국주의에 맞서 약소민족을 옹호하는 반동정신의 적자이며 궁극적으로 세계혁명의 맹주가 될 자격을 갖췄는지를 다투는 것이 중국판 제3세계론의 요체였다면, 지금 미국과의 세력경쟁 국면에서 중국은 광대한 비서구 세계를 향해 어떠한 메시지를 발신할 것인가.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일대일로’가 내건 ‘평화발전’이라는 이상한 구호로는 이미 수많은 질문과 도전에 직면한 미국의 자유

민주주의 이념에도 제대로 대적하기 어렵다는 것이다(원테켄·황더싱, 2015: 96). 그렇다면 그 모색의 출발점은 과거 중국이 내세웠던 반동정신의 함의로 되돌아가 그것을 ‘글로벌사우스’라는 당대적 질문에 대한 사유로 재탄생시키는 것이 아닐까. 필경 그 사유는 신자유주의의 억압적 구조, 전쟁과 재난의 위협, 생태와 기후위기 등 21세기 인류가 공통으로 직면한 문제에 대한 저항과 극복의 영감을 제시하는 것이어야 할 것이다.

“중국이 아프리카를 만났을 때”라는 다큐멘터리를 제작한 프란시스 형제(Marc and Nick Francis)는 중국의 아프리카 원조에 대해 식민주의 혹은 부채함정이라는 판에 박힌 비판을 하는 서구인에 대해, 먼저 중국에 대해 제대로 질문하는 법부터 배워야 한다고 말했다.

서양은 여전히 식민주의적 사고에 갇혀 있습니다. 아프리카를 오랫동안 변하지 않는 경직된 눈으로 바라보고 있어요. 우리의 지도층은 값싼 공산품에 대한 서구인들의 만족할 줄 모르는 욕구가 더 값싼 자원에 대한 중국의 요구를 추동한다는 사실을 종종 망각합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많은 상품들은 아프리카에서 채굴된 자원으로 만들어진 ‘메이드 인 차이나’입니다. 우리가 세계에서 우리의 자리를 찾으려면 중국을 더 잘 이해해야 합니다. 먼저 학교에서 중국인에 대해 배우고 중국에 제대로 된 질문을 할 수 있게 가르쳐야 합니다(Francis and Francis, 2011).

중국을 아프리카의 자원 약탈자라 비판하는 서구야말로 그 가장 큰 수혜자이자 공모자라는 프란시스 형제의 예리한 지적은 중국판 ‘남남협력’ 프로젝트인 ‘일대일로’를 제대로 질문하기 위해서는 보다 근본적인 사고의 전환이 필요함을 일깨워 준다. 그 열쇳말 중 하나가 중국이 이제는 사용하지 않게 된 ‘제3세계’가 아닐까. 혁명시대의 종언을 고하고 신시기(新時期)의 시작을 알린 1978년의 어느 연설(“實現四化, 永不稱霸” 1978.5.7.)에서 덩샤오핑은 중국은 여전히 제3세계이며 영원히 제3세계일 것이라고 공언했다.

사회주의 국가로서 중국은 영원히 제3세계에 속할 것이며 영원히 패권을 휘둘러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생각은 지금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중국은 아직 가난하고 말 그대로 제3세계 국가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장래에 우리가 발전

한 후에 패권주의를 휘두를 것인가입니다. 덧붙이여, 그대들은 모두 나보다 젊으니 지켜보게 될 것입니다. 만약 그때에도 중국이 아직 사회주의 국가라면 중국은 패권주의를 하지 않을 것이며 여전히 제3세계에 속해 있을 것입니다. 만약 그때 중국이 오만방자하게 세계에서 패권을 휘두르고 사사건건 간섭한다면 이미 제3세계의 계적(界籍)에서 스스로를 제명시켰을 것이고 분명코 더는 사회주의 국가가 아닐 것입니다. 1974년 연합국 특별회의에서의 나의 발언도 이러한 내용이었습니다. 이것은 마오쩌둥 주석, 저우언라이 총리가 정한 대외정책입니다. 우리는 이로써 후손을 가르쳐야 합니다(中共中央文憲編輯委員會, 1994: 112, 강조는 인용자).

중국이 발전하더라도 제3세계에 속할 것이라는, 언뜻 형용모순처럼 들리는 덩샤오핑의 말은 ‘제3세계’가 경제적 차원을 넘어 정치적·이념적 부호(code)임을 말해 준다. 특히 사회주의 국가로서 중국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바로미터로 ‘제3세계’를 내세웠다는 점이 의미심장하다. 계급혁명과 세계혁명을 포기하고 ‘현대화’를 당의 핵심 노선으로 전환한 시기임에도 제3세계의 정체성만큼은 중국의 변하지 않는 근본임을 확인했던 것이다. 미래의 중국이 제3세계라는 정체성을 망각했다면 그 중국은 이미 사회주의 국가가 아닐 것이라는 덩샤오핑의 말에 의거하여, 우리는 중국에 이렇게 질문할 수 있을 것이다. 미국과의 긴 싸움을 위해 ‘일대일로’라는 21세기판 대외원조로 비서구 세계를 총규합하는 지금의 중국에 ‘제3세계’는 여전히 유의미한 개념인가, 중국은 혹 스스로를 제3세계의 계적에서 이미 제명시킨 것은 아닌가, 라고.

투고일: 2024년 6월 10일 | 심사일: 2024년 7월 8일 | 게재확정일: 2024년 7월 31일

참고문헌

- 백지운. 2023. “미중 패권경쟁 시대, 다시 돌아보는 동아시아론.” 『창작과비평』 201호, 57-70.
- 주홍(周弘) 저. 김일산 외 역. 2015. 『중국대외원조 60년』. 서울: 푸른사상.
- 원테권·황더싱(溫鐵軍·黃德興) 저. 백지운 역. 2015. “중국의 일대일로는 평화발전의 이

- 넘인가.” 『창작과비평』 제43권 3호, 81-98.
- 艾周昌·沐濤. 1996. 『中非關係史』. 上海: 華東師範大學出版社.
- 陳兼. 2010. “將‘革命’與‘非植民化’相連接: 中國對外政策中‘萬隆話語’的興起與全球冷戰的主題變奏.” 『冷戰國際史研究』 9, 2-46.
- 黃振乾. 2023. “中國對外援助與受援國民族建構: 基於坦贊鐵路的實證考察.” 『世界經濟與政治』 2023(8), 29-59.
- 蔣華傑. 2014. “冷戰時期中國對非洲國家的援助研究(1960~1978).” 華東師範大學歷史學系博士學位論文.
- . 2016. “國際冷戰, 革命外交與對外援助: 中國對非援助政策形成的再考察(1956-1965).” 『外交評論』 2016(5), 81-108.
- . 主編. 2023. 『中國周邊國家對華關係檔案系列: 中國對外援助檔案選編』. 北京富資園科技發展有限公司.
- 沈喜彭. 2015. “援建坦贊鐵路決策問題上的中美非外交博弈.” 『安徽師範大學學報』 2015(1), 58-64.
- 中共中央對外聯絡部. 1961. 『非洲民族主義政黨概況』 내부자료.
- 中共中央文憲編輯委員會. 1994. 『鄧小平文選』 第二卷. 北京: 人民出版社.
- 中共中央文獻研究室. 1999. 『毛澤東文集』 第八卷. 北京: 人民出版社.
- 中華人民共和國外交部 中共中央文獻研究室. 1990. 『周恩來外交文選』. 北京: 中央文獻出版社.
- 楊奎松. 2010. “新中國的革命外交思想與實踐.” 『史學月刊』 2010(2), 62-74.
- Cook, Alexander C. 2019. “Chinese Uhuru: Maoism and the Congo Crisis.” *Positions: Asia Critics* 27(4), 569-595.
- Deshpande, G. P. 1975. “Chou En-lai’s African Safari.” *China Report* 11(5-6), 77-105.
- El-Khawas, Mohamed A. 1973. “China’s Changing Policies in Africa.” *A Journal of Opinion* 3(1), 24-28.
- Gott, Richard. 1999. “Introduction.” Guevara, Ernesto “Che.” *The African Dream: The Diaries of the Revolutionary War in the Congo*. translated by Camiller, Patrick. New York: Grove Press.
- Hadhri, Mohieddine. 2014. “U.S. Foreign Policy toward North Africa during the Cold War: from Eisenhower to Kennedy (1953–1963).” *Journal of the Middle East and Africa* 5(2), 95-110.
- Ismael, Tareq Y. 1971.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and Africa.” *The Journal of*

Modern African Studies 9(4), 507-529.

- Jansen, G. H. 1966. *Nonalignment and the Afro-Asian States*. New York: Great Britain.
- Lovell, Julia. 2019. *Maoism: A Global History*. New York: Vintage Books (A Division of Penguin Random House LLC).
- Monson, Jamie. 2009. *Africa's Freedom Railway: How a Chinese Development Project Changed Lives and Livelihoods in Tanzania*. Bloomington: Indiana University Press.
- _____. 2013. "Remembering Work on the Tazara Railway in Africa and China, 1965-2011: When "New Men" Grow Old." *African Studies Review* 56(1), 45-64.
- Nyerere, Julius K. 1973. *Freedom and Development*. Dar es Salaam: Oxford University Press.
- Scalapino, Robert A. 1964. "Sino-Soviet Competition in Africa." *Foreign Affairs* 42(4), 640-654.
- Sheng, Lee and D. F. do Nascimento. 2021. *The Belt and Road Initiative in South-South Cooperation*. Singapore: Springer Nature Singapore Pte Ltd.
- Sun, Jodie Yuzhou. 2022. "Supplied Cash and Arms but Losing Anyway: Chinese Support of the Lumumbist Insurgencies in the Congo Crisis(1959-65)." *Cold War History* 22(4), 459-478.

〈신문, 잡지, 보고서, 학회발표 자료〉

- 洪永红. 2021. "毛主席是否說過'非洲黑人兄弟把我們抬進聯合國'." 『文化縱橫』(10月 25日).
2023. "坦贊鐵路: 一條友誼之路, 發展之路." 『人民日報』(7月 26日).
- Adem, Seifudein. 2023. "Decoding the Discourse on China and Africa." A Conference titled Making Sense of the China-Africa Relationship: Theoretical Approaches and the Politics of Knowledge. New Haven, November 18-19.
- Chabala E. D. Wala. 2024. "Lobito Corridor: A Reality Check." (February 2) <https://afripoli.org/lobito-corridor-a-reality-check> (검색일: 2024. 7. 18.).
- CIA Office of Current Intelligence. 1961. "Authority and Control in the Communist Movement." DOC_0001086089 (August).
- _____. 1964. "Brazzaville's Move to the Left." DOC_0000679956 (October 30).

- _____. 1968. "Tanzania and Zambia: A Communist Chinese Railroad and a Western Road System?" CIA-RDP85T00875R001500220028-8 (March).
- _____. 1976. "Communist Aid to Less Developed Countries of the Free World, 1975." CIA-RDP08S01350R000602020001-7 (July).
- Francis, Marc and Nick. 2011. "When China Met Africa." *The Economist* (November 1).
- Lobito Corridor IPA. 2024. "The Lobito Corridor: What It Is and Why It Matters." (January).
- Murithi, Tim. 2023. "Order of Oppression: Africa's Quest for a New International System." *Foreign Affairs* May/June 2023 (April 18).
- Nzongola-Ntalaja, Georges. 2011. "Patrice Lumumba: The Most Important Assassination of the 20th Century." *The Guardian* (January 17).
- 1963a. "Peaceful Coexistence: Two Diametrically Opposed Policies." *Peking Review* 6(51), 6-18.
- 1963b. "A Visit for Friendship, Solidarity and Peace: Premier Chou En-lai's African Tour." *Peking Review* 6(51), 19-20.
- 1963c. "China Favours Increased Afro-Asian Representation in Principal U.N. Organs." *Peking Review* 6(51), 20-21.
2023. "China Is Winning Africa's 'White-gold' Rush for Lithium." *The Economist* (November 9).
2023. "How America Plans to Break China's Grip on African Minerals." *The Economist* (February 28).
2024. "China Plans to Spend US\$1 Billion to Revamp Tanzania-Zambia Railway in Race to Control Critical Mineral Trade Routes." *South China Morning Post* (February 9).

Abstract

From Bandung to “One Belt One Road”: China’s Aid to Africa during the Cold War Era and Its Third World Conception

Jiwoon Baik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article posits that the origin of “One Belt One Road,” a blueprint for contemporary China’s comprehensive global strategy, dates back to China’s foreign aid to third-world countries as an international united front project during the Cold War era. After the Bandung Conference, Africa became the most critical area for China to compete over influence in the third world. China’s turbulent experience in Africa in the 1960s and 1970s played a significant role in designing its world strategic lines from “Intermediate Zone Theory,” “Two Intermediate Zones Theory,” to “Three Worlds Theory.” By discovering the continuous and disconnected links in the process of the Cold War era’s slogan of “Asia-Africa Solidarity” being summoned back as a new name of “Global South” today, this article seeks a way to problematize “One Belt One Road” as a thought project.

Keywords | One Belt One Road, Third World, Bandung Conference, Two Intermediate Zones Theory, Three Worlds Theory, Global South, Asia-Africa Solidarity